

CEO 동경

신입직원 교육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7일 평균 9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월에 입사한 신입직원 20명에게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13년 한국철도협회 정기총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2013년 한국철도협회 정기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공단과 철도협회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신입직원, CEO와 함께 호연지기를 길렀다

- 한마음 극기훈련 시행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지난 13일 오후 채용된 신입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대전 계족산을 찾아 조직 결속력 강화와 자기극복을 위한 동절기 극기훈련을 시행했다.

94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고 공단에 입사한 신입직원들은 2주간에 걸쳐 각종 직무능력 습득교육과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날 열린 동절기 극기훈련은 맹주위 속에서 CEO와 함께 겨울산행을 하며 자기극복 및 철도발전을 위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번 극기훈련을 통해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을 것으로 믿는다"며 "새내기 직원 전원이 열정과 비전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실은 이번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엄격한 평가와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재적소에 신입직원을 배치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철도설계기준(KR CODE) 저작권 등록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지적재산 확보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달 글로벌 표준에 맞게 CODE로 체계화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제C-2013-001788호)했다.

KR CODE는 철도건설공사 기준에 대해 ▲이용자 활용성 향상 ▲기준 중복성 해소 ▲기준 연계성 강화 ▲개정 내용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UIC(국제철도연맹) CODE체계 벤치마킹, 철도설계지침과 편람으로 이원화된 기준 통합 등을 통해 표준화 및 체계화했다. 코드는 토목/궤도 88개, 건축 39개, 전철전력 56개, 신호제어 31개, 정보통신 28개 등 총 242개로 구성돼 있다.

본부는 지난해 과잉시설 없는 경제적 설계를 위한 '철도설계 기준 선진화 로드맵' 수립 이후 저작권 등록, 분야별 CODE 체계화 완성,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개선, 모바일e-Book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나 철도기술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오고 있다. 석준근 설계기준처장은 "저작권 등록을 계기로 철도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기술변화 추이를 수시로 반영해 제·개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2012) 구성

토목/궤도편 (Civil&Track)	제1장 KR C 01 총칙 ...	KR C-02010 철도건설 및 개발계획 ...	KR C-02010 (REV0.'12.12.05)
건축편 (Architecture)	제2장 KR C 02 철도계획 및 공동 ...	KR C-02040 내진설계 ...	KR C-02010 (REV1.'12.12.05)
전철전력편 (Electrification)	제8장 KR C 08 교양인반사향 ...	KR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 ...	KR C-02010 (REV1.'12.12.05)
신호제어편 (Signaling Control)	제10장 KR C 10 콘크리트교 ...		KR C-02010 (REV1.'12.12.05)
정보통신편 (Information Communication)	제14장 KR C 14 궤도 ...		

중국 정저우(鄭州)~취저우(徐州)간 신설 고속철도 감리사업 본격 착수

- 27억원 규모... 현재까지 535억원 매출 -

시설사업본부는 지난 4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정저우(鄭州)~취저우(徐州)간 신설 고속철도 1구간 시공감리사업 착수를 위해 웡위(熊偉) 총경리(사장)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성공적 사업수행과 향후 중국 내 고속철도사업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철도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27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공단은 그동안 중국 고속철도사업에서의 감리실적과 기술력을 높이 인정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48개월간 품질·안전·공정·환경관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05년 중국 고속철도 감리시장에 처음 진출한 공단은 총 13건의 사업을 수주해 53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됐으며 향후

발주될 추가사업의 수주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김광재 이사장은 정주중원철도감리회사 웡위(熊偉) 총경리(사장)와 저비용 고효율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쌍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두 사람은 또 항저우(杭州)~상하이(上海), 정저우(鄭州)~충칭(重慶)간 고속철도사업에 공동참여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중국 협력사인 중철제1 설계원과는 향후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랴저우(蘭州), 우루무치 지하철사업 및 베트남, 태국 등 제3국 사업 동반진출에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시안(西安)~바오지(寶雞)간 고속철도 감리현장도 방문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중국에서 다시 한번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역 장비유치선 설계기준 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 서해선 복선전철 등 5개 사업에 적용... 29억원 절감 효과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대부분의 역(정거장)마다 설치하고 있는 철도 유지보수용 장비의 주·정차 선로(이하 장비유치선)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선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서해선 등 5개 사업에 적용, 약 2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설계기준 내용은 장비유치선의 설치간격(역간거리)을 장비이동속도와 작업가능시간을 고려해 최저 25km~최대 60km로 설치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비유치선의 선로길어도 통상 300m 이상 설치되던 것을 최소 85m~최대 245m로 개선했다.

이번 설계기준 개선으로 시설투자 효율과 장비를 이용한 유지보수 작업 효율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신규 사업에 적용 시 지속적으로 절감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장비유치선 설치기준 개선 외에도 선로와 역 시설물(정거장) 배치계획인 배선분야에 기술력을 집중해 최적설계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건설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부는 효율적인 투자와 절감된 사업비의 재투자를 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장비유치선이란?

철도시설물(궤도, 전차선 등)을 보수하는 차량(장비)이 야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작업 개소 인접역으로 이동하여 야간까지 대기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유지보수용 차량(장비)의 주·정차(유치)용으로 설치하는 선로

□ 장비유치선 설치기준 개선(안) 비교

구분	당 초	개 선(안)
설 치 간 격	- 기준 없음 * 운영자와 협의 결정 * 과거 축선 있는 대부분 역마다, 최근 25km	- 합리적인 설치간격 산출식 마련 * (차단가능시간-0.5)×1/3×장비이동속도 * 차단시간에 따라 일반철도 25km, 일반철도 고속화 45km, 고속철도 60km 이상 이격 가능
유요장	- 기준 없음 * 운영자와 협의 결정 * 대부분 300m이상 설치	- 궤도구조별 기준 마련 * 자갈궤도 245m * 콘크리트궤도 85m(주박용145m)

공동도급공사 편법시행 업체 퇴출시킨다!

- 편법 운용 공동도급공사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 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 받은 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 받은 후 시공을 하지 않고 마치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본부는 최근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이 해당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각각 1개월과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본부는 이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본부는 지난 13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전파하고 공단의 공사 관리관이 공사착공 전에 반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확인토록 했다. 특히 공동이행계획서대로 인력과 자금 등이 투입돼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감독업무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본격 추진

- 설계시공 일괄입찰(T/K) 4개 공구 착수보고회 개최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1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설계·시공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선 도담~영천 T/K 4개 공구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이 사업은 중부내륙지역 개발촉진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속 250km/h의 고속화 철도로 건설된다. 본부는 기본설계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설계획을 최적화한 창의적·친환경적 설계를 통해 최고 품질의 철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황

